

새로 나온 책

문명을 통해 종교를 이해한다

종교는 신의 명령으로 탄생한 게 아니다. 자연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기후 변화에 따른 유목민족의 이동, 국가 체제와 사회 제도를 뒷받침하는 사상의 수립 등을 통해 종교는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종교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종횡으로 영향을 미치며 형이상학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냈다. 책은 인류 문명사의 흐름에서 세계 종교를 살펴보는 종교 입문서다.

문명의 탄생에서부터 제국의 흥망성쇠,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종교는 그 원인이자 결과였다. 신을 믿지 않아도 종교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인류의 종교 발자국을 따라가며 읽는 세계 문명 도감. 660쪽. 2만8000원. /김현정 기자 hki10



문명으로 읽는 종교이야기

홍익희 지음/행성B

혼자가 아니라

마크 앙드레 슬로스 지음/양영란 옮김/갈라파고스



버섯은 어떻게 나무를 우뚝 서게 할까. 바다 지렁이는 어떻게 80나 되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걸까. 상리공생을 연구하는 미생물학자 마르크 앙드레 슬로스는 동물, 식물, 인간과 미생물 사이의 공생 관계를 파헤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상리공생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진화해 나간다.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작은 친구들', 미생물 이야기.

520쪽. 2만5000원.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대법원 승소

6년 공방 끝에 최종 승소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공방 끝에 담양군에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16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 인가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

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4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19.7.5)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월 최대 160만원 지원한다

행안부 추경사업 선정 134명 대상 2년간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기대

광주지역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이 지역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광역시 지역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인건비와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 지역 우수 청년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활

력 제고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추경사업에 신청해 8월에 선정됐다.

대상 기업은 지역 전략산업(광, 전기, 금형, 의료, 자동차, 에너지)과 지식서비스업(디자인, IT서비스, 시험분석, 컨설팅, 이터닝)의 중소·중견기업이다.

대상 청년은 광주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자다.

총 지원 인원은 134명이다. 대상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0월부터 2년간 1인당 월 최대 160만원(인건비의 80%)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에 19일부터 2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업이 선정되면 9월중 기업들의 청년채용이 이뤄지고 채용인력의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신청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테크노파크홈페이지(www.gjtp.or.kr)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오영걸 시 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인력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먼저 찾아온 가을손님, 코스모스

지난 16일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한풀 꺾인 담양군 대나무바이오단지(한국대나무박물관 옆)에 활짝 핀 코스모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장성사랑상품권, 내달 10%할인 판매

5000원, 10000원 2종 구성 현금 구매 시 6% 금액 할인

장성군이 오는 9월부터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군내의 가맹점 등록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5000원 권과 10000원 권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 구매 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입처는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와 지역농협, 지역축협 본점 및 지점으로, 1인당 월 50만 원 이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장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발행기념 및 추석맞

이 특별 할인기간'을 갖고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또 관내 축제의 판매부스를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해,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비롯한 장성군의 축제에서 주민들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군은 포상금, 시상금 등 공무원에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출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지급해, 장성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동참한다.

장성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통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에 제품 구매,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절감과 신규 고객 확보 등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유동자금의 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밝히며 "상품권 구매와 가맹점 모집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상품권 발행에 앞서 군은 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맹점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장성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061-390-7351)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면 된다.

/장성=봉채영 기자

강진군, 제16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에너지 중요성·절약 공감대 형성

전남 강진군(군수 이승욱)은 오는 8월 22일 '제16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최대 전력

소비(4,589만kw)를 기록한 이후,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에너지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 내 27개 관공서, 공·사기업, 준정부기관도 앞장서서 동참하는 이날

행사에는 전력소비 피크타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 동안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 이상 유지하기 등)에도 모든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봉채영 기자

Weather forecast for August 19th, including temperature (32-21°C), wind speed, and a map of South Korea with regional weather data.